

매맞는 아내의 부부체계 개선을 위한 대상중심 가족치료

임종렬*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치료적 접근
- IV. 치료 과정
- V. 결론

I. 서론

우주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관계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법칙이며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관계가 없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고 그 자체가 관계에 의해서 창출되고, 관계에 의해 창출된 사고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관계의 근원과 법칙을 바탕으로 그의 존재 이유를 평가하고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는 곧 부여된 가치가 존재의 의미가 된다는 뜻이다. 가치는 존재 속에 내재해 있고 존재는 관계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으며 관계는 그 관계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개인으로만 존재한다면 개인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 개인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부여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과 관련된 개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남편 혹은 부인의 호칭을 갖게 되며 갖게 된 호칭대로 기능을 하다 보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과 역할이 부여된다. 따라서 자녀에게는 아들 혹은 딸이라는 호칭이 부여되며 일단 호칭이 주어진 관계에는 그에 합당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따른다.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비교될 수 있다면,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¹⁾와 피양육자인 자녀의 관계는 지구와 달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최소한 태양계가 우주의 하위체계로서 혹은 하나의 작은 우주로서 큰 우주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듯 가족 또한 하나의 작은 우주(가족사회)로서 큰 우주(국가사회)의 특성을 창출하고 창출된 특성을 발전 유지시키기 위한 기능을 한다. 지구가 태양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여름이 오고 멀리 떨어지게 되면 겨울이 오듯 부부의 정서적 체계 역시 관계의 원근에 따라 가정이라는 작은 우주의 분위기가 변하고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달의 모습이 변하듯 어머니의 감정적 상황에 따라 자녀들의 정서와 행동이 원만하고(등근 달 모양) 혹은 원만하지 못한 것(일그러진 달 모양)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부 관계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자녀는 그들이 성장하여 남편 혹은 부인이 되었을 때 역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의 관계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호 영향권 안에 있듯이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또한 가족이라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남편을 잘 만나야 부인의 삶이 편하듯 부인을 잘 만나야 남편의 삶 또한 편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 특히 양육자인 어머니를 잘 만나야 그들의 성장이 순조롭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

1)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잉태에서 출산까지 280일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궁 속에서 태아를 기른다. 그리고 출생 이후의 영아가 일생에 걸쳐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격일반의 기초가 형성되는 36개월 동안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 인생 초기의 경험 특히 자폐기와 공생기 그리고 격리개별화기를 거쳐 기능적 현실자아가 부화(孵化)되기까지의 36개월 동안을 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 최소한 유아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영아는 외부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양육자인 어머니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영아의 양육을 도맡아 한다는 이론이 확립된다고 할 수 있다.

는 부부가 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만일 관계를 수월히 하는 부부체계 때문에 부모체계가 분열되어 있다면 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자기-대상관계는 상호 용해되어 개체로서의 자율성 획득과 주체성 확립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받게 된다. 자율성 상실과 주체성 혼돈의 결과는 유기불안의 지독한 시련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제 삼자 특히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에게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고 매달리는(clinging) 타성(惰性)을 가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에게 매달려 보채고 칭얼거렸던 것처럼 배우자에게 매달려 보채고 칭얼거리는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강하여 부부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괴롭혀야 하는 성격상의 결함을 지니게 된다.

오늘날 희생자로서의 매맞는 아내의 실상과 매를 때리는 남편의 가학적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따라서 아내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그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고 맞는 남편과 부인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매를 때리고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매를 때리는 배우자(그 사람이 남편이든 부인이든)만을 악한 사람으로 혹은 인간 이하의 괴물로 속단하는 이론 부재 현상 혹은 기존 이론에 무지한 전문가의 태업(怠業)이 사회를 오도(誤導)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견과 양심 그리고 사회과학의 논리에 입각하여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제거하고 해소시켜 주기 위한 차원에서의 매맞는 아내의 심리를 고려하고 상황을 중재하거나 매를 때리고 맞는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여 그들이 배우자가 되었을 때 때리고 맞아야 할 필요가 없는 선한 마음을 가진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매를 때리고 맞는 가족성원간의 불미스러운 파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주변에는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 설사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잘못된 기존의 개념을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밖에 달리 평가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매를 맞는 아내 그리고 자식을 때리는 부모와 매를 맞는 자식간의 심리역동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매맞는 아내와 때리는 남편 그리고 매를 때리는 부모와 매를 맞아야 하는 자녀의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이다. 매를 때려야 하고 맞아야 하는 근원과 규칙을 바탕으로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자녀를 때리는 어머니의 관계속에서 우리는 한 여자가 딸로서, 아내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평가받고

평가된 내용에 의해서 호칭과 관련된 역할상의 위치와 가치가 부여되어 왔다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이다. 남편의 경우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자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매를 때리고 맞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체계에 내재된 병원의 실체와 부모 자녀간에 밀고 당기는 분열현상 때문에 학대를 받으면서 학대를 하고 학대를 하면서 학대를 받는 가족성원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하여 관계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호칭과 연계된 관계가 의미하는 관계속의 기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가족병리를 치유하는데 일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계적 속성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병원의 실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필자가 중재해 온 사례 가운데서 특정 가족 하나를 발췌하여 그 가족과 관련된 심리역동적 배경(이론)을 제시하고 내담자들이 상담 중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표출한 병리적 성격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 대상중심 가족치료의 기술적인 면을 예증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의 본능은 관계적 만족과 리비도적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관계적 만족은 그가 거래하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일차적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리비도적 만족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차적 추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모색되는 이차적인 추구로서 물리적인 만족 혹은 쾌락을 위주로 한 현상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삶이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 플라토닉한 것(정신적인 관계)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에로틱한 것(육체적 만족)을 우선으로 하느냐와 관련된 본능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찌기 Freud는 그의 심리학을 집대성함에 있어서 인간의 본능과 에로티시즘을 동일시한 바 있다. Freud의 인간은 에로틱한 존재로서 에로티시즘을 추구하고 추구한 만큼의 에로티시즘이 충족되면 그것으로서 삶이 의미로와지고 만족스럽게 장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후기 정신분석 이론가들 특히 Klein²⁾이나 Fairbairn³⁾, 그리고 Kernberg⁴⁾ 등은

Freud의 성심리학의 본능적 모순을 지적하고 본능의 정체를 찾아 내는데 공헌한 바 있다. 이들은 이들의 심리학을 대상관계이론이라 명명하고 관계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Freud의 성심리학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신분석학의 지평을 열었다.

대상과의 관계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초의 관계이자 마지막으로 청산해야 하는 최후의 관계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는 삶이 갖는 가치와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심리적 에너지의 모든 것이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삶을 지탱하는 동안에 향유하게 되는 대상과의 관계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관계하는 대상에는 절대대상과 과도기대상 그리고 개선대상⁵⁾이 있다. 사람이 절대대상 외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다른 사람은 과도기대상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 과도기대상이 의미있는 대상으로 합입되어 표상의 세계에 통합된 대상표상을 정립시켜 준다면 그 대상은 개선대상이 된다.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한 배우자들이 추구하는 바는 절대대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과 같은 질과 양의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한다.⁶⁾ 각 배우자가 추구하는 바의 에너지의 질과 양을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에너지를 추구하는 배우자가 원래 대상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에너지의 질이 불량하고 양이 미흡했다면 원래의 대상으로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질과 양의 에너지를 상대방 배우자로 부터 받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배우자의 관계는 상호 분열적인 관계를 재형성하여 확대적 상호작용을 할 수 밖에

- 2) M. St. Clair, 198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Self Psychology, Montrey, Cal. : Brooks/Cole Publishing Co., pp. 26-57.
- 3) J. Grotstein & D. Rinsley, 1994, Fairbairn and the Origins of Object Relation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4) Otto Kernberg, Severe Personality Disorder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5) Donald W. Winnicott, 'The Mother-Infant Experience of Mutuality' in Parenthood : Its Psychology and Psychopathology ed. Anthony and Benedek, Boston : Brown and Company. 1970.
- 6) 대상(양육자)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자기-대상 표상의 세계는 표상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대상 혹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초기의 인간관계(출생후 36개월 까지) 모형 이외의 변형된 그 어떠한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았는가에 의해 결정된 관계적 에너지의 질과 양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이러한 욕구를 저해하는 어떠한 인간관계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받은 영아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확대를 받음으로서 관계적 의미를 돈독히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러한 심리적인 욕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질과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대상만을 탐색하기 때문에 표상의 세계에 합입된 대상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대상과 유사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내적 현상이 학대적 부부관계를 낳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부부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생육 과정 또한 그들 부모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과잉보호나 무관심 혹은 육체적인 구타와 같은 학대를 받고 자라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의 행동양상에서 그들이 성장할 때 표출했던 행동양상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보여 줄 그들의 부부관계 역시 그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 그 성격에 의해서 양육된 대로 그들의 배우자를 관리할 것이며 자녀의 양육 또한 그들 부모가 그들을 양육했던 방법대로 양육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살아 온 성격과 똑같은 성격을 판에 박아 전하듯이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1. 학대적 부부의 성격특성

인간이 표출하는 행동상의 모든 것은 성격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행동이 행동자체에 의해 행동을 표출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격 또한 성격 자체만으로서 성격특성을 표출할 수 없다. 성격은 행동에 의해서만 표출 가능하고 행동은 성격의 지시에 의해 표출되는 성격특성을 외부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행동은 성격이 만들어 낸 현상학적 표상이고 성격은 대상관계에 의해 조성되는 과거의 경험이 집대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격을 보았을 때 성격은 전성기기적 생활사의 축적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성격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생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가 하나의 단위로 결속된 수많은 단위들이 모여 형성된 것⁷⁾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사람의 정신내적 욕구는 학대받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하는 사람 그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대하는 배우자간의 관계를 보면 학대를 받은 배우자는 언젠가는 학대를 한 배우자를 학대를 받은 만큼 학대함으로써 주고 받는 관계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일 학대를 하는 사람은 학대만 하고 학대를 받는 사람은 학대를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갖는 편중성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매를 맞는 피학대자인 부인이 학대하는 남편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대받은 만큼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

7) James F. Masterson, *Psychotherapy of the Borderline Adult : A Developmental Approach*. New York : Brwnner/Mazel, Publishers, 1976, pp. 58-69.

는다면 그 부인은 그 배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거나 아니면 학대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그 부인을 더 이상 학대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남편으로 전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부인은 학대하는 남편을 거부하는 것으로 혹은 가사에 태업하는 것으로 혹은 금전을 낭비하거나 그 밖의 일탈 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으로 학대하는 남편에게 보복함으로써 결국 서로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양과 질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학대의 특성은 학대하는 개인의 일부분이 된 대상과의 관계적 역사를 통해서 내재화된 대상의 이미지와 자기의 이미지에 의한 것이다. 이는 곧 자기가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학대적 경험에 의한 좌절과 자기비하적 정동에 의해 창출된 이차적 순환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학대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연하면 학대를 받아 본 사람만이 학대를 할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학대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학대하고 싶은 충동과 학대를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학대의 주요 원인은 영유아 시절에 영유아의 자아기능을 전담했던 대상의 자아결핍에 의한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상의 결핍은 배고픔과 같은 정서적 갈증으로서 공격적인 충동과 욕구를 자아내게 하고 공격적인 욕구와 충동은 대상에게 매달리게 하는 번거로운 상호 부담을 안겨 준다.

대상결핍은 자아의 미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자아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할 잔여자아를 대상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결과적으로는 대상을 이상화하고 이상화된 대상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자행하는 이득을 취한다.

자기학대적 행위는 도덕자아⁹⁾가 활성화된 것으로써 잔여자아를 양도받아야 할 대상을 이상화함으로써 앞으로 양도될 잔여자아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고 반면에 양도 되지 않은 잔여자아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가 요구하는 잔여자아의 양도는 자기의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상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잔여자아의 양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잔여자아의 회수(回收)를 위한 시위는 한낱 결실이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 까닭은 분열된 대상 자신의 자아 때문에 느끼는 절박한 유기감을 경감하기 위해 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자녀)의 자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

8) David P. Celani, *The Illusion of Love ; Why the Battered Woman Returns to Her Abuser*, New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79-209.

9) W. R. D. Fairbairn, "A Revised Psychotherapy of the Psychoses and Psychoneuroses," in :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 Tavistock. 1952.

상에 의한 자기의 잔여자아 양도는 곧 자기(자녀)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한다. 자기의 잔여자아를 대상이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정동은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36개월 이후의 자기는 대상이 소유한 자기자아의 양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도덕 방어를 할 뿐이다.

정동의 안정적인 균형은 자기불안의 경감과 관련되고 유기불안의 경감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 강약이 결정된다. 관심의 정도가 높을 때 유기불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관심의 정도가 낮아지면 다시 유기감이 상승하는 시이소 게임 현상을 나타낸다. 자기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가 불안해 할 때 상승정동을 타고 자기는 대상의 정동이 격화되어 뜨거운 분노의 열을 토해낼 때 상승정동을 탄다. 이러한 시이소 게임현상이 계속해서 상호 학대적 보완체계를 유지하게 한다.

자기-대상과의 관계에서 시이소 게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 부부가 된다면 그들의 상호관계는 당장에 자기-대상관계에서 경험했던 시이소 게임의 정동 무드를 타는 숙명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한 때 학대한 배우자가 다음에는 학대를 받게 되고 반대로 한 때 학대를 받은 배우자가 다음에는 학대를 하게 되는 균형에 맞는 상호 학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대의 원인이 가학, 피학적인 경험에 근거하고 학대의 원리가 시이소 게임의 균형을 유지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필히 그래야 된다고나 그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학대의 원인이 가학, 피학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가학을 통한 학대나 피학에 의한 학대가 학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부연하면 매를 때리는 사람은 매를 맞는 느낌을 가지고 매를 때리고, 매를 맞는 사람은 매를 때리는 느낌을 가지고 매를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를 때리고 맞는 과정에서 매를 때리는 사람이나 매를 맞는 사람의 정동이 일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매를 때리고 맞는 학대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가 괴로워하고 원통해 하고 분해하고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리고 맞는 과정에서 때리는 입장의 사람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 경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 담긴 공격적인 요소는 성애적 욕구의 복잡한 양상을 띄고 가장 강렬한 초월의 경험을 갖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인간의 기능 중에서 가장 극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희열에 찬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가장 깊이 퇴행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자기와 타인간의 붕괴의 경험이 배우자 학대를

재연하게 한다. 고문하는 사람과 고문을 당하는 사람간에 발생하는 친밀감과 이 양자의 정신적인 경험의 영향이 그들 관계 속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 때의 친밀감은 가장 원시적이고 해리된 혹은 억압된 인식, 자기와 대상간에 용해된 전적으로 나쁜 관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발달 과정 중 공생기에 분리된 가장 좋은 대상의 반대 극에 속하는 부분대상¹⁰⁾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매를 때리고 맞든 간에 매를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매를 맞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반대로 매를 맞는 사람이 없으면 매를 때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매를 때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매를 맞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매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 성장 초기의 대상과의 확대적 관계가 표상의 세계에서 이상에서 제시한 관계적 매너리즘을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강한 지시가 있기 때문이다.

2. 배우자 선택 특성

잔여자아를 양도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갖게 된 미성숙한 자아를 소유한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역시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부부로서 결속되었을 때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잔여자아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공급해 줄만한 잉여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갈등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이론가들(Lincoln & Straus¹¹⁾, Johnson¹²⁾)의 주장은 폭력을 가하는 남편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부인의 성격을 이원화하여 폭력의 모든 책임을 폭력을 가하는 사람(일반적으로 남편)에게 부과하는 편협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이론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남편이 없으면 폭행을 당하는 부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폭행을 받고자 하는 부인이 없다면 폭행을 가하는 남편이 없다는 다른 측면의 역동성을 고려해 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변수에는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지도 않은 채

10) Otto F. Kernberg, Love Relations : Normality and Patholog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5-31

11) A.Lincoln & M.Straus, Crime and the Family, Springfield, Ill, Charles C.Thomas Publisher, 1985, pp. 5-23

12) B. Johnson & H. Morse, Inju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 15, 1968, pp. 147-152

때리는 남편은 무조건 나쁘고 옳지 않으며 매맞는 부인은 무조건 선량하고 옳다는 주장은 남성 우위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배우자의 학대는 그 학대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잔여자아의 양도 문제와 관련된다. 잔여자아의 양도문제와 관련된 배우자와의 갈등은 그들이 결혼 이전에 이미 그들의 대상과 공유했던 갈등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절대대상(영유아시절의 어머니)으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잔여자아를 위해 절대대상을 향한 구걸과 협박과 순응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과도기대상으로서 혹은 준절대대상으로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배우자를 향한 구걸과 협박과 순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결과를 안겨 주는 것이다. 이를 부연하면 절대대상과의 관계에서 얻고자 했던 실효성은 잔여자아를 양도받아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으나 이를 성취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자기와 대상이 서로 학대하고 괴로워 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과도기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학대하며 괴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구걸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순응하는 것으로써 종속적 비자율적 분열적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절대대상으로서 또는 삶을 위한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게 될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수급받은 에너지가 어떠한 질의 것이었느냐에 따라 추후의 성격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아자아의 충동적 욕구와 대상자아의 흥분조절 수준의 상호관계가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양육기에 영아가 받는 어머니로부터의 에너지의 양과 질이 양호했는가 불량했는가 그리고 충분했는가 불충분했는가에 따라 영아기 이후의 자기감과 관련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의 소비처와 소비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대상이 밀착되어 있던 공생기와 심리적인 부화를 시도하는 제2의 탄생기인 격리개별화기¹³⁾의 에너지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자아의 비정상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자아가 정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 의한 지속적인 잔여 자기자아의 양도 거부는 결국 좌절감을 심화시키고 심화된 좌절감은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심리현상을 가지게 한다. 좌절감과 수치심의 근원은 사랑의 거부에 근원한다. 대상의 현실자아가 자기자아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고 속단해 버림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수치심

13) W. R. Bion, The Imaginary Turn, In Second Thoughts : Selected Papers on Psychoanalysis, Northvale, N. J. : Aronson, pp. 3-22.

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수치심을 자기(자녀)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의 잘못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성장 과정상의 이러한 결정은 영아자아의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영아자아가 성장한 후에 가지게 될 성격특성으로 고정되어 분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분열적 표상은 도덕적 방어와 분열적 방어¹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게 되는 병리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은 외부세계를 여과하여 인지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는 외부대상 특히 자기의 자아체계와 유사한 과도기 대상의 이미지는 신선하고 신비롭고 개성이 뚜렷해 보이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인지되는 성향을 갖는다.

자기자아는 과도기대상의 생육력과 그 생육력에 의해 결정된 성격을 인지하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맞는 아내가 된 여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자기-대상 표상이 회구하는, 함께 살아야 할 과도기대상으로서 자기의 생육력과 유사한 과거, 아니 똑같은 생육력을 가진 대상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어린시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같은 행복한 과거를 가진 사람을 과도기대상으로 선택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 갈 것이고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자기처럼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여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III. 치료적 접근

매를 때린다는 것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를 때린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매를 때리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 특히 정신분석학이 진일보된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세계에 잠재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불만 특히 잔여자아를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불만이 자기학대적 분노로 변형된 것을 그가 현실적으로 거래하는 과도기적 대상(배우자)에

14) W. R. D. Fairbairn, op. cit., p. 165.

게 투사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상대방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분노에 의한 배우자 학대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행위상의 문제를 의식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의식이 관찰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인지된 내용을 해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무의식 세계의 동기를 점검하고 학대적 행위의 재현을 막는 치료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제시할 뿐이다.

과거에 매를 맞아 본 경험에 의해 형성된 매를 맞고 때려야 하는 사람의 성격구조 때문에 매를 맞아 본 사람만이 매를 때리고, 매를 때리는 사람만이 매를 맞는 심리적 역동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는 사람과 매를 맞는 사람의 심리구조에는 동일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매를 때리고 맞는 인간관계에 참여하는 성격구조는 일반적으로 경계선적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란 자아의 기능 중에서 특히 함입, 감별, 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는 그래서 성격구조상의 손실이나 결함을 대상표상을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첫째는 자기와의 관계를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함입의 문제이다. 함입의 문제는 대상 부재와 자기자아의 애정 통로를 차단한 다시 말해서 영아자녀의 애정표현을 거부한 대상의 기능적 모순에 의해 갖게 된 좌절에 원인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상함입의 부재를 이해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상의 자기 잔여자아 양도 거부현상과 유기불안 그리고 유기불안과 관련된 분열방어의 속성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신질환을 위한 치료적 중재가 다 그렇지만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중재에 있어서는 자기와 대상을 감별할 수 있는 자아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된다. 대상의 경계선적 계략에 몰려 함입된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는 자기감을 구축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감 구축에 실패한 자녀의 현실자아는 결과적으로 자기와 대상을 감별해서 인지해야 하는 감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자녀의 감별력 상실은 결과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주증상 중의 하나인 자기-대상 용해 현상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기-대상 감별력의 상실과 자기-대상 용해 현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아의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계선적 분열과 유기불안을 야기시키게 됨으로써 자기는 대상에게 매달리고 대상은 자기에게 매달리

는 자기감이 없는 관계적 모순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은 치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공략이다.

자아 통합의 실패로 인한 분열과 매달림은 의식 수준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수준에서는 오히려 다행감을 갖게 하는 표리부동한 현상을 내포한다. 학대적 행위 자체가 무의식적 매달림이요 매달리게 하는 것은 또한 무의식 수준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학대자와 그의 희생자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대자 혹은 매를 때리는 남편을 처음부터 치료에 개입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주변 상황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특성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수용하지 못하고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혀 온 어린시절의 학대자(대상=어머니 혹은 양육자)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자신보다 더 강한 혹은 힘이 센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성격특성 때문에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잠재적으로 침략적인 아내나 침략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상담가를 싫어하며 혹시라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허락을 구걸해야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남편들이 상담가에게 인도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혼 소송장에 놀란 나머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허둥대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결혼 초기에 매를 맞고 친정으로 피신한 부인이 상담을 받지 않는 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내보일 때이다. 이 밖의 경우는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감금된 이후에 심리치료를 받고 나면 석방을 해주겠다는 판사의 권유나 아니면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석방판결이 내려졌을 때이다¹⁵⁾. 물론 이러한 조건부 치료개입은 미국같은 나라의 경우에 한해서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내 구타와 신체적 감금관계는 현실적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일로서 거론의 여지가 없지만 머지않은 장래(1998. 7. 1)에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라는 다행감이 그 때를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정서는 아내를 때리고 감금 당하는 남편이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어떻든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질문이나 평가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아내학대와 관련된 질문이 자기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분노의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아내를 학대한 것에 대한

15) David P. Celani, op. cit., pp. 54-57.

책임 회피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상담가)으로부터 아내 앞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하며 남자로서의 자기감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의 이러한 방어적 태도에는 표상의 세계에 억압된 관계 속의 경험들, 그들이 지금 느끼고 말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원시적 내용(욕구)들이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남편들이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염원이 망상적 소유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그들에게는 더이상 떨어뜨릴 품위도 없으며 파괴될 수 있는 남성으로서의 자기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염원하는 품위와 자기감에 대한 소유 갈망이 결국 가지고 있지도 않은 품위와 자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하게 하며 그 품위와 자기감이 현실감 속에서 소멸될 것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결속된 환상이 품위와 자기감에 대한 강한 집착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남편들의 이러한 성격상의 결손을 충당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환상적인 집착으로부터 풀려 나올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개선대상(reforming object)은 과도기대상으로서 간헐적인 만족을 공급해 온 아내들이다. 매를 때리는 남편들의 과도기대상으로서의 아내들은 남편을 흥분시키고 좌절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할 뿐 새로운 형태의 부부관계를 위한 개선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아내들의 이러한 소극적인 역할이 그들의 남편을 흥분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매를 맞고 화해하고 그리고 또 매를 맞고 화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나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는 아내는 양자가 공히 품위와 자기감이 결여된 성격장애(일반적으로 경계선 중후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형적인 경계선보다 조금은 더 혼란된 정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를 때리고 맞는 부부는 대체로 본능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공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이 없고 모든 일에 화끈하거나 냉냉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화끈할 때는 아내를 때리는 과정에서 “한 번 죽어 봐라” 하는 생각을 할 때와 “좋다, 그래 때릴 바에는 한 번 죽도록 때려 봐라” 하고 매맞는 아내가 남편을 자극 할 때이다. 그리고 그들이 좌절할 때는 아내를 때리고 난 직후의 남편이 “내가 언제 때렸느냐?”는 듯이 그럴듯한 언행으로 능숙하게 유혹적이고 과장된 언행을 할 때이고 매를 맞고 난 후의 아내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꿈쩍도 않을 것이다”는 각오 속에 상당 기간을 냉정하게 침묵을 지키는 때이다. 이러한 언행을 하는 그들의 내면세계에는 완벽하게 비어 있는 공허감과 깊고 지속적인 분노, 억제할 수 없는 충동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복수를 하겠다는 적의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들 남편

들의 의식 수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아내의 의식 수준에는 원통하고 분해서 함께 살 수 없다는 원망의 죄의식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사죄하게 하고 특별한 대우를 하게 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오와 매를 맞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다. 강한 도덕방어기제를 활성화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들이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의식수준의 언행은 극히 한시적이다. 자기의 폭행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를 미화하고 이제부터는 폭행이 없는 화목한 삶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듯한 언행을 하다가 이러한 언행을 하게 한 도덕적 방어가 기세를 잃게 되면 이·삼일이 멀다 하고 곧 분열적 방어를 활성화시켜 다시 아내를 미워하고 하찮은 이유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아내를 때리고 난 후에 사죄하고 최선을 다해 잘 해 주려는 듯한 남편자기의 언행에 시큰둥한 반응 밖에 보이지 않았던 아내를 두려워 했던 마음을 되살려 혹은 그 동안 아내가 자기를 잘 돌보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복 행위로서 아내를 때리는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아내 또한 후회하고 반성하는 남편이 측은하고 가엾어서 잘 대해 주다가도 남편의 심상에 어떠한 변화가 보이는 듯 하거나 정신 내면의 세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증과 짜증이 쌓이게 되면 공연히 통명스럽게 말을 하고 눈을 흘기고 바가지를 긁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보복을 시도하는 언행을 한다. 이는 곧 남편자기와 아내자기가 활성화시킨 분열방어에 의해 남편은 아내를 적대시하고 아내는 반대로 남편을 적대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기자신들을 거부해 주기를 당부하는 일련의 자기학대적 언행이 결과적으로 매를 때리고 맞는 흥분된 대상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매를 때리고 맞는 남편과 아내의 병원(病原)의 실체 또는 욕구의 파생물에 대한 연구의 부재와 사회의 무지(無知)가 지금까지 매를 때리는 남편들에게 부부싸움의 원인 혹은 아내학대의 근원적 책임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해 왔었다. 그러나 심리분석적 입장에서 남편들로부터 매를 맞는 부인들의 심리역동을 조명해 보았을 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남편과 아내의 유사한 심리현상들이 상호학대로 보여지는 자기학대적 부부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리는 남편과 맞는 아내는 그들이 어린시절에 내재화한 나쁜대상에게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상호 호소하는 무의식적 내용과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 뿐인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사랑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데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호관계적 의미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떠나지 못하고 상호학대적 관

계를 맺고 있는 부부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린시절에 상실한 상징적인 대상의 친밀함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퇴행시키는 것이다. 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항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자(남편)와 피학대자(아내)로 구별되어 인식하고 있는 학대적 관계는 사실상 그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흥분시키는 느낌과 좌절하는 느낌을 긍정적인 합입을 통해 대치시켜 줄 수 있는 확실성과 관심 그리고 성실 등의 지지적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치료의 대처전략이 된다.

합입은 매를 때리고 맞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과도기대상(상담가)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살아 온 때리고 맞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해와 인내와 기다림을 요하는 힘든 작업이다. 특히 학대하고 학대받은 부인과 남편이 서로가 어린시절에 겪었던 그들의 부모에 의한 학대를 서로 전이하며 싸웠던 것처럼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학대자에 대한 기억과 느낌을 상담가에게 전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고 능가하지 않는 한 계획된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상담가의 지지적 태도를 불신하는 학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지를 거부하거나 지지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어린시절에 아니 과거의 기억속에 지지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도우려는 상담가의 지지를 느끼지 못하고 상담 중에 느꼈던 만족스러운 치료관계를 상담실을 떠나자마자 모두 잊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떠난 다음에도 상담가의 존재를 의식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기술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매를 때리고 맞는 합리성에 대한 이유를 제거해 주는 것이 상담가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합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피상담자들에 의한 상담가의 합입은 치료를 위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상담가를 내재화한 것을 근거로 하여 상담가에 대한 의존욕구를 경감시키고 학대자로부터 자신을 감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감별은 서로가 서로를 서로의 대상으로 왜곡시켜 이해하게 했던 자기-대상 용해현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하고 용해현상으로부터 감별된 표상의 세계의 자기는 더 이상 배우자를 어린시절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다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감별력 쟁취를 위한 상담은 필수적 조건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감별력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상담가에게 의지하는 신뢰성을 구축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와 배우자를 감별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동을 가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동이 자아 통합이라고 하는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을 창출해 내는 산실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아구조의 통합은 분열방어의 사용을 줄이게 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혹은 확대를 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게 한다. 분열은 자기-대상을 좋고 나쁜 존재로 이분화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통합은 분열된 자기-대상 표상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상담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이 합입되면 그 때부터 자신의 분열방어를 이해하고 관대한 느낌으로 그 분열방어를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담가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피상담자의 문제에 대한 상담가의 정성이 갖든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

분열방어의 수용이 곧 자기-대상 표상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방어에 의한 사고와 행동이 일관성을 잃지 않게 하여 상담가에 대한 피상담자의 긍정적인 합입이 상담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된 자기-대상 표상 속에 새롭게 형성된 호칭(呼稱)에 대한 개념이 그 호칭에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비축될 때까지 상담가는 피상담자의 현실자아로서의 기능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피상담자를 위한 상담가의 현실자아가 피상담자의 현실자아로 이양되어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적극성이 배양되었을 때 매를 때리는 남편보다 매를 때리지 않는 남편이 혹은 매를 맞는 아내보다 매를 맞지 않는 아내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¹⁶⁾ 매를 때리던 부모를 존경하던 자녀의 마음이 없어지고 매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자녀의 눈에 더 존경스러워 보일 때 그리고 매를 맞아 준 자녀보다 매를 때릴 필요가 없는 자녀가 부모의 눈에 더욱 더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때 치료의 목표가 달성된다.

합입과 감별 그리고 통합과정을 거쳐 이룩되는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필수로 한다. 그 첫째 조건은 절손된 대상관계부분단위를 재조정하여 잃어버린 자기-대상 표상의 항구성을 정립시켜 줄 수 있는 과도기적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때의 과도기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인 혹은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그 둘째 조건은 확보된 과도기적 대상이 대상항구성 정립을 위해 이원화된 자기와 대상을 일원화하여 부적응적 자기 이미지를 적응적 자기 이미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해와 관용 그리고 수용에 의한 지지와 믿음을 충분히 제공했을 때 경계선적 병리의 원인이 되어 온 우울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과 무기력 및 나태함을 이겨내고 죄의식과 무관한 현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적 중재가 모두 완결되었을 때 죄의식과 관련된 확대적 관계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 우울한 느낌을 더 이상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원만한 관계 속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 David P. Celani, op. cit., pp. 163-165.

IV. 치료 과정

1. 사례 소개

본 연구에서 발췌 예시한 사례는 병리적으로 매를 때리고 맞는 남편과 부인의 정신적, 물리적인 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해서 상담을 의뢰해 온 부인을 대상으로 단독상담을 시작하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부부상담으로 연결된 것이다.

2. 주불평

“지금까지 저는 매를 맞고 살아 왔습니다, 남편한테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편은 저를 때렸습니다. 상습적으로 인정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3. 가족

본 사례 가족은 핵가족으로서 부인(38세, 대졸, 고등학교 교사)과 남편(40세, 대졸, 개인사업) 그리고 딸(11세, 초등학생)로 구성되어 있다.

4. 상담 형태

본 사례의 초기 상담은 부인 단독상담으로 이루어졌다.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것이 단독 상담의 이유였지만 그 때의 상황은 감히 남편이 참석하는 협동상담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상담이 시작되면서 부인의 정황이 급속도로 긍정적인 선회를 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방어 형태가 도덕적으로 변해 갔다. 그 덕분에 5주 쯤의 상담에 남편이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담이 종결될 무렵에 하나 밖에 없는 딸이 합세하게 되어 명실공히 체계를 갖춘 가족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상담은 부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5. 중재 도구

본능적이며 공격적인 가족성원의 관계적 유대가 자기감의 결여와 유기감에 의한 분열 방어를 강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 상실에 의한 분노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대상을 함입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과도기대상에 몰입할 수 있는 지지를 수반한 명료화와 대결 그리고 해석 위주의 분석지남적(analytically oriented) 기법을 주 도구로 사용하였다.

6. 상담 기간

본 사례는 1995년 12월에 최초의 면담으로 시작하여 1996년 10월에 상담을 마칠 때까지 주 1회 총 38회의 상담을 했고 관계적 의미가 돈독해지고 호칭과 관련된 역할 수행에 원시적 투사와 이상화된 전이가 없어졌을 때 상호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상담을 종료하였다.

7. 확대가족 사항

1) 친가

남편의 원가족(친가)은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며 양보할 줄 모르는 아버지(63세, 농업)와 6.25 동란으로 인하여 건장한 청년들은 모두 군에 입대하여 전쟁터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소아마비로 군에 갈 필요가 없는 남자를 골라 결혼을 했으나 동란이 끝나고 건장한 남자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 오는 것을 보고 불구자인 현재의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남편을 멀리 하기에 이른 어머니(61세, 고향 부근의 중소도시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모로 일하고 있음)와 큰아들이자 독자인 클라이언트(40세, 인테리어회사 경영)와 직물소매업을 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큰딸(37세, 출가)과 농부와 결혼하여 친정 부근에서 살고 있는 둘째 딸(35세)이 있다.

2) 친정

부인의 원가족(친정)으로는 한 때 개업 변호사로 명예와 부를 누리다가 지금은 심심풀이로 자그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71세, 변호사)와 괄괄하고 성급하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여 아들들만 위해 주고 하나 밖에 없는 딸은 마치 하인처럼 부리며 업

청난 학대를 예사로 했던 어머니(68세, 전업 주부)와의 사이에 3남 1녀가 있다. 큰아들(45세, 결혼)은 자동차 부품회사를 경영하여 중견 기업인으로 인정받으며 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둘째 아들(43세, 결혼)은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주 남미 X국의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일등 서기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외교관이고, 셋째 아들(41세, 결혼)은 영국에 유학하여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 X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천대를 받으며 성장한 딸, 클라이언트(부인 37세, Y고교 교사)가 있다.

8. 상담 내용 요약

상담 초기의 X부인은 힘이 없었고 의욕이 없었고 눈물이 많았다. 몸매는 가냘팠고 작고 창백한 얼굴은 수심으로 더욱 창백해 보였다. 버릇처럼 비스듬하게 의자에 앉은 부인은 언제나 할 것 없이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깊이 꽂은 채 고개를 숙이고 죽은 듯이 앉아 있다가도 말을 해야 할 때면 고개를 번쩍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거친 내용의 말을 거침없이 해 나갔다. 시간이 흐를 수록 점점 얼굴은 상기되고 목소리가 커지며 거친 말을 쏟아 놓고는 했다.

부인. “우리 남편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표독하고 냉정할 수 있어요.”

하며 X부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난날의 사건들을 술선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비교적 직설적이었고 솔직한 듯 했으며 분명했다.

부인. “18년전 군에서 특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똑똑해 보이기 는 했지만 차갑고 무섭게 보여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너무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남편처럼 그래요. 고집이 세고 잔인하고 냉정한 분이예요. 어머니의 지독한 고집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사람하고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요. 그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아, 내가 죽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가 보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죽어

주었으면 좋을 것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

상담가. “어머니께서 죽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까?”

부인. “네, 항상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미친 개한테 물려 공수병으로 사경을 헤매일 때도 어머니는 나를 그냥 죽도록 놓아 둔 분이셨으니까요. 그래 차라리 어머니 뜻대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소원대로 죽어 드리자’라고 각오 아닌 각오를 했어요.”

상담가. “공수병이라면 개한테 물린 후에 생기는 병이 아십니까?”

부인. “네, 미친 개한테 물렸어요.”

상담가. “그런데 치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부인. “네, 그래요. 치료를 못 받았어요. 저의 어머니가 치료를 받도록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 때 X부인의 얼굴에 분하고 섬섬한 느낌의 표정이 섬광처럼 스쳐 가는 것이 보였다.

상담가.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됐단 말입니까?”

부인. “네, 그랬어요. 저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만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잔인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용돈주는 것, 그리고 제 말을 들어 주는 것까지도 인색하셨으니까요. 야단치고 때리고... 말도 마세요. 제가 어렸을 적엔 정말 주어 온 자식인 줄 알았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결혼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 그 때 저는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이 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싸우는 것을 포기했고 어머니는 항복을 받아 낸 셈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일종의 오기를 부린 셈이었어요. 어머니와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저로서는 그것이 일종의 오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을 위해 당신의 고집을 관철시키고 좋은 결과를 얻어 낸 셈이 된 거지요. 일단 어머니에게 항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어쩐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 결혼을 못하겠으면 그만 두어라. 평양감사도 제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든

데....' 하시며 어머니답지 않게 연민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 보았어요. 그 때 갑자기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좋아졌는데... 아니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생각이 가슴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어요."

상담가. "그래서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군요?"

부인. "네,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대상과의 관계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초의 관계이자 마지막으로 청산해야 하는 최후의 관계로써 한 번 형성된 그 관계는 좋은 싫든 일생을 두고 자기의 표상으로서 기능하며 운명과 관련된 대소사(大小事)를 결정할 때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가사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X부인이 말한 대로 어머니의 성격을 닮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싫었다면 분명 그 남자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X부인은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가 싫었지만 어머니의 꺾을 수 없는 고집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고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했다. 자기가 살아 온 지금까지의 끈욕스러운 삶의 패턴을 고집하는 자기 표상의 욕구 때문에 그러한 삶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결혼이 아니고 어머니의 고집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어머니를 빙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녀가 주장한 어머니의 고집에도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는 딸인 X부인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일을 결정해 줄만 한 딸의 잔여자아를 양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의 대리자아로서 딸의 현실을 거래하고 딸이 결정해야 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일을 대신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느끼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딸에게 양도해야 할 딸의 잔여자아를 양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과 딸이 결정해야 할 것을 대신 결정해 주어야 하는 결정권에 대한 월권행위는 어머니의 만성적 매달림(clinging)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모녀가 서로 관계 속의 운명을 한탄하면서도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성이라고 지칭하는 심리기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분열된 자기-대상 표상과 이원화된 방어기제(분열방어와 도덕방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러한 자기-대상 관계는 어떠한 상황에서의 관계를 막론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관계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고집보다는 차라리 어머니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어머니의 무의식적 계략¹⁷⁾에 넘어가 결혼을 하게 되었

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계략이 어떻든 그 결혼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은 X부인 자신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X부인 자신에게 있다고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잔여자아를 양도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갖게 된 미성숙한 자아를 소유한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역시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부부로서 결속되었을 때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잔여자아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공급해 줄만한 잉여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갈등은 참으로 심각하다.

부인.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난 다음날 구경차 제주도 여기저기를 돌아 다녔어요. 그 때 정말 멋있게 보였던 한 쌍의 신혼 부부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 한 쌍을 바라 보았던가 봐요. 정말 홀린 듯 그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을 때 남편이 화가난 목소리로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어?”하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는 골목으로 끌고 가서 인정사정 없이 머리, 얼굴, 가슴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마구 두들겨 뺐어요. 전신이 새까맣게 멍이 들 때까지요.

상담가.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얻어 맞았습니까?”

부인. “그럼요. 정말입니다. 아무튼 저도 모르게 엉겁결에 얻어 맞았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했던 것은 매를 맞을 때 아팠다기 보다는 시원하다는 느낌같은 것이 있었어요. ‘원껏 때려 봐라’하고 맞고만 있었어요. 얼마를 맞았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그 때 남편은 정말 실성한 사람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앓았어요.”

상담가. “그런데 그 때 시원한 느낌 같은 것이 있었던 말이지요?”

부인. “네에. 그랬어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만 호텔로 돌아 왔을 때는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그 아픔이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날 밤 남편이 함께 자기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순히 그냥 요구에 응했어요.”

17) 어렸을 때부터 모진 학대를 하며 자녀를 키워 온 어머니는 학대를 받은 자녀가 결혼 후에도 그의 배우자로부터 어머니인 자기가 학대한 것과 같은 학대를 받아야만 어머니의 직성이 풀리는 분열된 성격을 말한다.

상담가. “순순히 응했던 말이죠?”

부인. “네에. 그랬어요. 거절이라도 했다가는 또 큰 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
고요. 그리고 저도 함께 자는 것이 싫지 않았어요.”

상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합당했을 것입니다.”

부인. “어머, 정말이세요?”

상담가. “그렇지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일어 날 도덕자아의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부인. “도덕자아라는 게 뭐예요?”

상담가. “계속 말씀해 보세요. 금방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인. “그리고요. 남편은 그날 밤 외에도 매일 같이 함께 자기를 원했고 저는 남편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어요. 매일 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계속해서 ‘잘
못했다’ ‘사랑한다’ ‘당신같이 착한 사람을 왜 때렸는지 내가 죽일 놈이다’는
등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비는 일을 수 없이 되풀이 했어요.”

상담가. “조금 전에 도덕자아가 무엇인지 물으셨지요? 지금 말씀하신 남편의 태도가 바
로 그 도덕자아의 활성화에 의한 마음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
니까?”

부인. “아, 네에. 그렇군요. 그럼 도덕자아란 참 좋은 것이네요.”

상담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덕자아는 분열자아라는 또 다른 한 면을 가지고 있
으니까요.”

학대의 특성은 학대하는 개인의 일부분이 된 대상과의 관계적 역사를 통해서 내재화된 대
상의 이미지와 자기의 이미지에 의한 것이다. 이는 곧 자기가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학대적
경험에 의한 좌절과 자기비하적 정동에 의해 창출된 이차적 순환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
기 때문에 과거의 학대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연하면 학대를 받아 본 사람만이
학대를 할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학대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은 학대를 하고 싶은 충동과 학대를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의 주요 원인은 영유아 시절에 영유아의 자아 기능을 전담했던 대상의 자아 결핍에
의한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상의 결핍은 배고픔과 같은 정서적 갈등으로서 공격적인 충

동과 욕구를 자아내게 하고 공격적인 욕구와 충동은 대상에게 매달리게 하는 번거로운 상호 부담을 안겨 준다.

대상결핍은 자아의 미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자기 자아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할 잔여자아를 대상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결과적으로 대상을 이상화하게 하고 이상화된 대상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고자 하는 이상화된 대상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자기학대적 행동으로 전치되어 폭행을 자행함으로써 죄의식을 강화시키는 이득을 취한다.

자기학대적 행위는 도덕자아가 활성화된 것으로 잔여자아를 양도받아야 할 대상을 이상화함으로써 앞으로 양도될 잔여자아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고 반면에 양도되지 않은 잔여자아를 요구하는 강렬한 시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심리현상이 매를 때린 남편과 매를 맞은 X부인의 행동 패턴에 잘 나타나 있다.

부인. “3박 4일 예정으로 신혼 여행을 떠났지만 예정했던 기간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온 몸에 멍이 든 상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15일이 더 지난 다음에야 아직도 파랗파랗하게 멍이 든 얼굴에 분으로 떡칠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친정 식구를 비롯한 시가 식구들은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아팠느냐? 지금은 괜찮으냐?”는 말만 했을 뿐 멍이 든 얼굴의 상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굴의 상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한편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섭섭해서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 마음을 참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상담가. “식구들이 얼굴의 상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속상하고 섭섭했던 말이죠.”

부인. “네. 그랬어요.”

상담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했으면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부인. “어머. 그런 것을 어떻게 말해요? 차라리 분하고 말지요. 챔피언스러워서.”

상담가. “그렇다면 식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챔피언을 사는 것 보다는 모르고 분한 쪽이 더 나았다 그 말씀인가요?”

부인.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쪽이 나았겠지요. 그렇지만 기왕에 맞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말한다면 남편을 고발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맞고 챔피언 사고 그럼 저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지 않아요? 또 맞았으면 맞았지

그런 짓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때는 또 어찌지요?”

부인. “맞았어요. 그래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결혼 초에 남편이 군에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제법 자상한 면도 있어 보였고 때로는 유모어스럽게 웃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를 하고 그가 전공한 특수분야의 교역자로 근무하면서부터 그는 완벽하게 독재자로 변모해 갔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자가 되어 버린 거지요. 밖에서는 성인군자처럼 행세 하며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집에서는 독이빨을 들어낸 독사처럼 차갑고 무서운 명령과 비판과 학대를 일삼았어요. 만에 하나 그의 말에 저항을 한 다거나 실수로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날이면 그는 가차없는 폭언과 매질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이 엉망이 된 거지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상담가. “그게 무슨 말이죠. 아무 것도 없다는 것 말입니다.”

부인. “함께 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담가. “네. 그렇습니까? 그럴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맞는 부부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때리고 맞는 과정에서 성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후에 관계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구요.”

부인.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화나는데 어떻게 함께 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싸우고는 꼭 집을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포악해 졌을까요?”

상담가.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부인. “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요.”

X부인이 묘사한 것과 같은 애정관계의 도착은 부부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공격적인 요소가 지배적인 이들 부부는 그 공격적인 요소가 흥분을 통제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새도매저키스틱한 관계를 지배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서적 애정관계를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초자아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호 투

사되어 가학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과거의 결핍된 대상관계를 보충하려는 수단으로서 각자가 원하는 한 가지 형태로만 그들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대상관계는 현재의 부부관계에 끼어 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성적 역할은, 남편은 성적으로 지배적이고 흥분해서 아내를 간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시 상징적으로 성적인 사랑을 하고 수용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다가 어머니가 양육하는 영아로 무의식적인 역할 전환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먹여 주고 감싸주는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그는 다시 의존적인 딸을 보호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함으로서 그녀가 할 수 없는 부서진 밥상을 고치는 일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내는 성인의 성적 파트너에서 존적인 딸로 혹은 아이를 먹여 주는 어머니로 역할전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학적인 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진 죄 많은 어린 딸이 되거나 자신의 환상 속에서 강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죄의식을 경감시키면서 성교를 즐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상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들은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애정관계 속에서 공격성을 통합시키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X부인의 남편과의 관계에서처럼 무의식적 공포가 붕괴되고 공격성이 자기와 배우자를 특별한 역할에 고착시키게 되면 공격성만을 표출하는 부부가 된다. 이러한 현상이 X부인의 만성적 결혼 갈등을 가지게 한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의존적이고 매달리고 사랑에 목마른 X부인과 자아도취적이고 무관심하고 자기 중심적인 남편, 성숙한 남자를 원하는 지배적이고 강하고 통제하기를 좋아하는 부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난폭한 아이같은 남편에게 좌절을 느낄 때 부인의 애정결핍에 의한 자기학대적 본질이 매를 맞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 성과 동격인 함입된 과거가 없는 것 때문에 과거와 성을 동일시하여 성을 탐닉하는 남자는 성교의 빈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성에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느낌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에 굶주린 남편이 성에 제한된 부인을 만나 서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부인. “한 번은 남편이 직업관계상 항상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날도 밥을 먹고 들어오려니 생각하고 여느 때와는 달리 저녁 준비를 해놓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하필이면 그날 밤따라 밥을 내놓으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들어올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저녁 준비를 해 놓지 않았다고 말하

며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짓기 위해 쌀을 퍼담고 있을 때 남편이 뒤에서 달려 들어 쌀바가지를 뺏고 쌀바가지에 든 쌀을 저의 머리에 부으며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상담가. “저런. 그런 일이 어떻게...”

부인. “어떻게 라니요? 한 번 들어 보세요. 얼마나 맞았는지... 때리는 매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맞았어요.

상담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심하게 때렸단 말이죠?”

부인.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 들었으니까 맞았지요. 아프지 않으니까 지르던 소리가 멎어지는데요. 이상한 것은요, 지르던 저의 소리가 멎어지니까 남편의 때리는 행위도 멎어지더라고요. 그 후 일 주일이 넘게 출근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 때 남편은 보약을 지어 오고 꽃을 사오고 금목걸이 같은 것을 사오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또 수 없이 되풀이해 대데요.”

상담가. “결국은 어린애가 되기 위해서 싸운 셈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부인. “뭐가요? 어째서 그렇지요?”

상담가. “매 맞고 학교에 안 가고 맛 있는 것 얻어 먹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된 셈이었지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인.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몰랐습니다.

상담가. “남편과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인. “어머.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어떤 때 남편이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이에요. 처음 몇 년 동안은 “저러다가 제 팔에 꺾여 그만 두겠거니”하고 참고 견디어 보았지만 그 강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빈번해져 갔어요. 남편은 어머니처럼 저를 못 살게 했어요. 견디다 못한 저는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을 업고 친정으로 친구집으로 때로는 여관으로 체면도 염치도 없이 전전긍긍하며 살아 왔어요.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중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상담가. “항상 가만이 있는데 아니면 별 일도 아니었는데 남편께서는 부인을 그렇게 모질게 때렸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인. “혹시가 아니에요.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는 것처럼 날 뛰었어요. 정말이에요.”

상담가. “그렇겠지요. 부인에게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그 전 날에 혹은 일 주 전이나 한 달 전에 부인에게서 섭섭하게 해 준 일이 있다든지 혹은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든지 그런 것 말입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부인에게서는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으로서는 그 어떤 기막힌 일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복잡한데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상담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인. “아, 네. 무엇을 물으시는 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 거라면 매번 거절을 했어요.”

상담가. “그 거라면이라고 했습니까?”

부인. “네. 그 거요. 성이요.”

상담가. “그러니까 그 성을 이용해서 ‘저를 보십시오. 저는 남편을 잘못 만나 팔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우리 어머니가 정해 준 남편이랍니다.’ 그렇게 남편과 어머니를 동시에 세상에 고발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얻은 것이라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비참해 지는 것이라든지...”

부인. “둘 다요. 둘 다를 얻고 싶었어요.” 하며 곤욕스러운 눈으로 상담가를 쳐다 보았다.

상담가. “그렇게 빨리 수궁할 줄 몰랐는데요. 아무튼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얻고자 하셨던 그것들은 부인을 황폐시키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을 텐데요. 성의 황폐는 인간 개인의 황폐와 인간관계의 황폐를 의미하는 아주 대단한 것인데요. 그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성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부인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을 울고 난 부인은 고개를 들며) 잘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부인. “네. 그래요. 제가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을 만나 남편에 대

한 사소한 불평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상담가. “그게 화근이 되었던 말이죠?”

부인. “그분이 설마 그런 말을 전할 지는 정말 몰랐지요.”

상담가. “그렇지만 말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말이죠.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 주었으면 하는 은근한 바램을 가지고 그 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요.”

부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에요. 그 부하 직원이 제가 한 말을 남편에게 전했으니깐요. 그것 때문에 남편은 몹시 화를 냈어요. “밖에 나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망신을 주었다”며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하고 마구 달려 들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칼을 휘둘러오는 거예요. 그러한 남편에게 대들다가 왼쪽 팔에 깊은 자상(刺傷)을 입고 친정으로 도망친 일이 있어요. 친정 외에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때도 친정에 갔다가 모진 학대를 받았어요. 친정에서도 어머니의 모진 구박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때 남편은 남편대로 날마다 집에 돌아와 줄 것을 간청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말을 들어 주는 척하고 4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편의 언약은 언제나 처럼 며칠을 가지 못했어요. 다시 또 싸워야 했고 싸울 때마다 인정사정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의 매박이 되어야 했어요. 매를 때리고 난 후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항상 빌며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며 선물 공세 등을 했어요. 남편의 그러한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나 그러한 행동이 위기에 처한 급한 관계를 수습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거짓행위라고 생각했을 때나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결국 며칠을 웃고 살다가 다시 또 때리고 맞는 그런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상담가. “역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부인. “그런 일이라니요?”

상담가. “어떻든 싸워야 하고 집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떠나는 척 해야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사정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할 일 안해도 되고 예를 들면 섹스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 오고... 어떻게 믿는 데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부인. “어머. 어떻게 그런 말씀을...”

상담가. “그러나 그것이 부인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인.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지요? 무엇때문에 매맞는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상담가. “그거야 부인처럼 살기 위해서 겠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싫어서 겠죠.”

부인. “정말 그럴까요?”

상담가. “어떻게 생각하시던 크게 다를 것이 없겠지요. 다만 결혼생활처럼 어려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에 대한 준비 하나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생활이 결국 산으로 올라가는 이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인. “아, 정말 그렇군요. 맥이 빠지는 일이네요. (침묵) 할 말이 많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담가. “아니지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인 자신을 통찰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X부인과 남편이 매를 때리고 맞는 과정에서 매를 때리는 남편이나 매를 맞는 부인의 정동이 일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매를 때리고 맞는 학대과정에 나타나는 정동의 일치는 서로가 괴로워 하고 원통해 하고 분해 하고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는 등의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때리고 맞는 과정에서 때릴 때의 배우자는 기분이 좋고 맞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 경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 담긴 공격적인 요소는 성애적 욕구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가장 강렬한 초월의 경험을 갖고자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X부인과 남편이 싸우는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의 기능 중에서 가장 극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희열에 찬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가장 깊이 퇴행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자기와 타인간의 붕괴의 경험이 배우자 학대를 재연하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부인. “한 번은 학교 회식 때문에 남편보다 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어요. 그 날 남편은 현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열어 주지 않았어요.”

상담가. “그러니까 그 날도 혹시 남편에게 싸울 때가 됐다 그러니 우리 한 번 싸워 보자는 식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늦게 귀가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또 그렇게 됐나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요. 남편은 저의 친절 어머니 같았어요. 한 시간이 넘게 사정하며 밖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들어간 저는 또 다시 남편으로부터 매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녀도 돼? 선생이면 다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제 오는 거야?’ 하며 때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맞고 있는 것이 원통해서 처음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남편에게 대항했어요.”

상담가. “만약 그 때 말이죠. 달려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부인. “한 두 대 맞았겠지요.”

상담가. “그런데 달려 들었던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부인. “맞기를 원하고 달려 들었겠지요. 달려 들었는데요. 그것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 들었어요.”

상담가. “그 때 남편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부인. “남편도 죽일 것처럼 달려 들었어요. 그 때 갑자기 남편이 무섭게 느껴 졌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겼어요.”

상담가. “문을 잠그면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인. “아니지요. 잠긴 문을 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요. 남편은 정말 그랬어요. 문이 열리지 않으니깐 부엌 칼을 들고 와서 손잡이 주변의 문을 파기 시작했어요. 베니다로 만든 문이라서 잘 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상당한 넓이의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 곳에 고무 호수를 집어 넣고 화장실 수도꼭지와 연결하여 차가운 물을 방으로 뿜어 대는 것이었어요.”

상담가. “많이 무서웠겠습니다.”

부인. “네.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집의 전기를 모두 꺼버렸어요. 유난히도 추운 겨울밤이었는데요. 전기불이 나간 차가운 방에 차가운 물이 바닥에 차오르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사정을 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만약 나가는 날이면 남편의 횡포는 더할나위 없이

거세질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베란다 쪽의 창문을 열고 “사람 살려” 하고 마구 소리를 질러 댔어요. 그랬더니 얼마쯤 후에 옆집 남자들이 몇 명 달려와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상담가. “이웃들에게 우리 남편은 이렇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신 셈인가요?”

부인. “그리고 싶었어요.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었겠지만요. 저는 그때 이웃 남자들이 집안으로 들어 오는 틈을 타서 이 때다 싶어 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미친 여자처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갈 곳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나 갈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어요. 친정으로 가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친정 집에 들어섰을 때 친정어머니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지 여기는 왜 오느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데려가게. 빨리 와서 데려가.’ 하며 낮은 소리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그 때처럼 제 인생이 가없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때가 없었습니다.”

상담가. “역시 그랬었군요.”

부인. “뭐가요?”

상담가. “와야 할 딸이 집에 왔다는 것 말입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죠?”

상담가. “딸이 갈 곳이 없어 친정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를 과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구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집 가기 전의 그 생활 그대로를 남편과 함께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했을 것이구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딸은 어머니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유기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인. “저의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담가.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제가 말한 것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모질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딸이 남편한테 얻어 맞고 친정으로 피신을 왔는데 그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가. “남편과 싸우지 않으셔야 겠지요. 행복하게 사셔야 겠지요. 그럼 매를 맞고 친

정으로 피신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어머니처럼 모진 사람을 사위로 선택한 동기나 부인에게서 지금의 남편을 싫다고 하면서도 남편으로 택했던 연유는 딸이 매를 맞고 친절에 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무의식과 남편과 싸우고 친절에 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친절에 간 다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서로 예전의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부인의 무의식과 어머니의 무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인. “무의식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상담가. “이번 싸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만 한 통만 해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사정이었던가 보지요?”

부인. “아니요. 할 수 있었어요. 하겠다 해 놓고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상담가.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든 셈이 아닙니까? 아마도 그 때가 또 한 차례 싸워야 할 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네? 아. 네. 아마 그랬을 지도 몰라요. 우리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야 했는데 그 무렵에는 웬지 모르게 좀 조용했을 것 같아요.”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부인은 대단히 공격적이었다. 상담이 계속되면서 부인의 공격성이 점진적으로 경감되고 상황에 맞는 수용성을 가동할 수 있는 여유를 보였다. 당시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상담가의 지속적인 지지적 명료화와 해석에 의해 조금씩 함입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과도기대상으로서 상담가를 동일시할 수 있게 되므로써 싹이 트기 시작한 자기감의 성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담이 계속되고 부인의 표상이 재함입되면서 남편을 미워하는 대신에 불쌍히 생각하고 그의 난폭한 공격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인 자신의 공격성과 관련된 새도매조키 스틱한 성격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을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남편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흥분하고 그 때마다 폭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원인이 부인의 행동에도 상당 부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성장 과정상의 불합리성이 야기시킨 대상 결핍에 의한 이상화된 대상에 또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남편을 대동하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

건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적이었던 부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남편의 마음을 설득하여 상담에 응하게 했다는 것과 남편의 자아가 발달된 이후 남편이 그렇게도 목마르게 찾고 있던 통합된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부인이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편. “은혜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저에게 불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집사람이 선생님을 괴롭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집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상담현장에서의 남편은 성인군자처럼 언행을 했다.

부인.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아내였는가를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상담가. “저와의 상담이 처음이시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려운 것을 말하러 오는 곳이니깐요. 편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남편. “선생님, 말씀 낮추어 주십시오. 그러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부부상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상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간혹 부인의 입에서 과거의 남편의 폭행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남편은 계면적어 했으며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인을 때렸던 자기는 자기가 아니었다고 한사코 때린 자기와 지금의 자기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 이것을 본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왜 꺼내 놓으세요?” 하며 부인이 손가락으로 녹음기를 가르켰다.

남편. “이것은 왜라니 이것도 몰라? 이거 녹음기 아니야? 녹음해서 누가 옳은지 사람

들에게 들려 주려고 그런다. 왜?"하며 눈을 부라렸다.

상담가. "녹음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녹음을 하려는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 "당신은 항상 이래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사실은요. 어제 밤에 들어서 좀 다 투었거든요. 이이 어머니가요. 저..." 하는데 남편이 벼락같은 소리를 질렀다.

남편. "시끄러워. 그만 두지 못해."

부인. "그만 두기는 뭘 그만 뒀요. 당신을 생각해서 그러지는 건데요. 당신 어머니 도와 드리자는데 뭐가 그리 나빠요. 당신 어머니가 남편 버리고 읍내에 나가 식당에서 식모 살이를 하는데 자식이라는 당신은 땡땡거리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고생하는 어머니는 그렇게 내버려 두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부모가 밍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남편. "우리 어머니고 뭐고 그만 두라면 그만 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소아마비 절름발이고 올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버리고 떠난 화냥질하는 여자다, 왜? 이제 속이 시원하냐? 시원해?"

부인. "그러니까 돕자고 했지 않아. 돕자고.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부모를 원망해요? 원망을. 그 분들이 당신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도망쳐 나온거지. 누가 당신더러 도망쳐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며 고학하라고 했어요. 다 당신이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선량한 척했던 부인과 선량하게 살겠다던 남편이 갑자기 짐승처럼 변했다. 무섭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 죽일 듯이 달려 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싸우다가 녹음기를 집어 든 남편이 상담가를 향해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며 "죄송합니다" 하고는 휙 나가 버렸다. 말만의 싸움이었지만 그들의 싸움은 정말 대단했다. 도덕자아가 활성화된 자기학대적 싸움은 이토록 격한 면을 가지고 있다. 위의 단편적인 대화에서 자기학대적 행위와 활성화된 도덕자아의 관계적 진면모를 볼 수 있다. 자기학대적 행위는 도덕자아가 활성화된 것으로서 잔여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지금 여기에서 과도기적 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을 이상화함으로써 앞으로 양도될 잔여자아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처리된다. 그러나 자기가 요구하는 잔여자아의 양도는 자기의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상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잔여자아의 양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잔여자아의 회수(回收)를 위한 시위는 한낱 결실이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 까닭은 분열된 대상 자신의 자아 때문에 느끼는 절

박한 유기감을 경감하기 위해 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남편 혹은 부인)의 자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에 의한 자기의 잔여자아 양도는 곧 자기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한다. 자기의 잔여자아를 대상이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정동은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36개월 이후의 자기는 대상이 소유한 자기자아의 양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도덕방어를 할 뿐이다.

정동의 안정적인 균형은 자기불안의 경감과 관련되고 유기불안의 경감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 강약이 결정된다. 관심의 정도가 높을 때 유기불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관심의 정도가 낮아지면 다시 유기감이 상승하는 시이소 게임 현상을 나타낸다. 부인의 자기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은 부인이 불안해 할 때 상승정동을 타고 부인은 남편의 정동이 격화되어 뜨거운 분노의 열을 토해낼 때 상승정동을 탄다. 이러한 시이소 게임 현상이 계속해서 상호학대적 보완체계를 유지하게 한다.

위의 사건이 있는 후로는 부인만의 상담이 계속되었다. 한달 반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부인이 어색한 얼굴의 남편을 다시 대동했다. 상담을 통해서 통찰한대로 부인이 남편의 새로운 대상(양육자)이 되어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인정해 준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상담은 남편의 주장을 명료화시키고 그의 과거의 생각을 지지적인 언행으로 대결시켰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그것도 필자를 향하여 필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었다. 사죄를 하면서 그는 이상한 호칭으로 치료자를 불렀다. “사부님,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료화와 대결은 때로 고통이 따랐지만 그들은 그 고통을 잘 참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인고(忍苦)는 새로운 대상을 함입하게 했고 함입의 축적은 그들에게 개체로서의 자기감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내용의 상담이 계속되면서 부인과 남편의 관계가 용해된 상호 의존상태에서 벗어나 자기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그들이 서로 필요해서 같이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부부로서 합세하게 되었다.

X부인이 친정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가족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부부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매를 때리고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담말기에 이르러서는 간혹 약간의 저항을 보였다. 아마도 X부인과 그의 남편이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분열방어에 대한 항수와 상담이 종결과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서 생

긴 유기불안이 그러한 저항을 보이도록 자극했었을 것이다.

상담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긍정적인 자기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상대방을 이상화하는 도덕적 자아와 상대방과 자기를 평가절하하며 괴롭히는 분열적 자아를 이분화하여 활용하는 대신에 중심자아의 기능이 현저해진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피상담자들의 변화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느낌을 통합하여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배양되었다는데 있다. 그리고 그들의 표상의 세계를 통합시켜줄 수 있었던 새로운 대상 함입에 의한 자기감의 재소유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과도기대상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던 부인이 개선대상으로서의 역할변경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해진 일이기 때문에 가족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인의 위치가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함입과 자기감과 표상의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상담은 종료과정을 위해 계속 진행되었다. 피상담 가족이 서로가 서로의 지지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보상대상관계 부분단위와 철회대상관계 부분단위가 수용되고 통합된 대상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계획대로 상담을 끝낼 수 있었다.

V. 결 론

우리의 정서로 부부관계를 조명해 보았을 때 부부는 분명 조건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상호 양육하는 과정에서 존경의 예를 갖추고 체계를 지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남편과 부인간의 관계적 실체를 보면 세습적인 통념으로 생각해 온 호칭에 따른 관계적 의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남편이 부인을 그리고 부인이 남편을 불신하고 저주하며 저항하는 학대적 관계 속에 방치되어 있는 부부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간섭하고 멸시하며 때려도 된다는 상식이 동원되는 관계적 모순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순을 일상화하고 있는 부부들의 문제를 중재하고 있는 상담 실무자들을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부부체계의 실체와 그 실체를 중재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소개하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부의 호칭과 관련된 역할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병리적 부부의 부조리한 관계적 모순을 보았다. 물론 때리고 맞는 관계가 잘못 정립된 개인의 성격 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의 근본이 어디에 근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부부로서의 기대에 상호 부합하지 못하고 보완적이지 못한 이유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에 개입하여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기대하는 대로 자녀의 적응능력을 성장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수 많은 사건들이 미성숙한 부모 자녀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그 부모 자녀 관계가 새로운 부부의 관계적 원형이 된다는 사실이 본 연구 과정에서 논의 되었다.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학교 폭력과 자동차 폭력 그 밖의 모든 폭력이 자식을 때리는 부모들의 무분별한 잔인성에 의해서 야기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자녀의 온상인 가정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극히 야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적 장치가 마련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 늦게 실효를 거둘 수도 없는 일부 특권 계층, 특히 아내들을 위한 폭력방지법이 겨우 재정되어 그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법이 재정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좋은 부부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없고 부모가 원하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지 않은 자녀가 없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좋은 부모상을 함입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은 좋은 자녀로서 자기-대상을 감별하고 자율성을 획득하여 통합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이러한 부모 자녀간의 관계적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치 자녀를 비난하고 명령하고 저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자녀는 자녀대로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부모의 부당한 처사에 대결함으로써 관계적 의미를 훼손시키는 사실상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편과 부인이 된 다음에 상호 학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예증했다.

누가 누구를 학대하든 학대의 원인과 양상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대자는 일반적으로 대상결핍에 의한 유기불안을 문제의 주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매달리고 실망하고 경이원조하는 피해망상적 분열(splitting) 현상을 증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맞는 부부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써 통합되지 못한 대상항구성(object constancy)을 결정(結晶)해 줄 수 있는 대상중심 치료가 중

제의 유일한 방법 아니면 최소한의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대상중심 가족치료에서 가족 정서의 대상 역할을 하는 부인을 치료의 중심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치는 존재 속에 내재해 있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으며 관계는 그 관계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의 관계가 서로 영양력을 행사하는 상호 영양권 안에 있듯이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 또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 남편을 잘 만나야 부인의 삶이 편안하고 부인을 잘 만나야 남편의 삶이 편안하듯 부모 특히 양육자의 역할을 전담하는 어머니인 대상을 잘 만나야 자녀의 성장이 순조롭고 성장한 다음에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관계 속의 의미가 퇴색되었거나 원래의 빛깔이 제대로 채색되지 않았던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관계의 선과 빛깔 혹은 음영을 달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상중심 가족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증한 본 연구의 상담방법을 임상 실제에 도입하여 한국이 가족치료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활용되었으면 한다.